

시론



박 남 기
광주교대 교수

국난 극복을 위해 국민께 올리는 간언

날벼락 같은 계엄사태로 나라가 백척간두에 서 있는데, 양측은 자기 진영에 유리한 논리만 앞세우며 싸움에 몰두하고 있다. 솔로몬의 재판에는 천모가 있어서 아기를 살릴 수 있었는데, 지금의 여당과 야당의 싸움을 보면 어느 쪽도 천모가 아닌 것 같다. 탄핵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양비론으로 치부하며, 그래서 당신의 입장은 무엇이냐고 물어볼 일 것이다. 모두에게 바라는 것은 죽음에 직면한 아기에 대한 연민의 정부 터 갖는 것이다. 어느 한쪽이 막강한 힘으로 다른 쪽을 제압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하여 아기를 살려내길 바란다. 그러나 상황이 그리 녹록지는 않아 보인다. 절박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양정당과 국민이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길 간절히 소망하며 내 생각을 나눈다.

대화의 출발점은 여당이나 야당, 그리고 한쪽을 지지하며 투쟁하고 있는 국민 모두 대한민국을 미래로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싶어한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믿을

이 없다면, 서로 상대를 파멸시키려 할 것이고, 그 결과는 공멸이 될 수도 있다.

이번 계엄사태와 관련해 나도 대통령 탄핵을 강하게 지지한다. 반대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답답하게 다가오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을 들어다보면 일부 수궁이 가는 면도 있다. 그들을 비이성적인, 혹은 문해력이 낮은 집단이나 개인으로 치부하는 것은 갈등을 줄이는 데에, 그리고 지금의 사태를 해결하는 데에 별 보탬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의 생각 구조와 논리, 그리고 그들이 우려하는 점을 이해하기 위해 대화하며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려는 시도가 더 필요하다.

정치 집단이 서로 싸우며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야당이 여당을 지속적으로 공격하며 국정운영에 실패하도록 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집권을 목표로 하는 정당의 특성상 자연스러운 행태이다. 민주화 이후 모든 정권에서 이러한 행태는 반복됐다. 야당의 입장에서 현 정권이 실패해야만 자신들의 차기 집권 확률이 높아진다고 믿기에 그렇게 행동할 것이다. 그러나 국민 입장에서 보면 어느 정권은 국정운영을 제대로 해줘야 국가의 미래가 밝아지고, 국민도 행복해질 수 있다. 국한 싸움으로 국가를 위기로 몰아가는 정당이 아니라, 협치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정당이 차기에 집권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사회를 만드는 것, 그것이 국민이 해야 할 역할이다.

국민은 각자의 자리에서 소임을 다하면서 도 정치 집단의 싸움을 냉정하게 지켜보고

바른 판단을 하며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담 스미스(Adam Smith)가 말한 '중립적 제3자'로 거듭나는 방법이다. 우리 사회의 중립적 제3자는 양측으로부터 매도당하기 때문에 설 자리가 없어서 아예 목소리를 내지 않거나 결국 어느 한쪽에 속하게 된다. 이러한 사회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현실의 양대 정당은 지역, 세대, 성 간의 갈등을 비롯한 각종 갈등을 조장함으로써 지지층을 결집하는 손쉬운 전략을 택하고 있다. 이렇게 분열시켜 놓아야 제3당이 훌륭한 후보를 내더라도 그를 찍지 않고 양당의 하나를 찍게 된다. 싫어하는 쪽이 당선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지하는 정당이 내세운 후보가 실령 무능하고 문제가 많더라도 찍게 될 것임을 그들은 잘 알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정당 내에서의 권력 암투가 정당 간의 싸움보다 더 비열하고 잔인하다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결국은 정치권의 편 가르기에 놓이지 않는 깨어있는 국민이 늘어날 때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아질 것이다.

지금 국가를 구할 영웅을 기다릴 때가 아니다. 우리 각자가 열린 마음을 가진 지도자라, 그리고 시대의 영웅으로 거듭나야 할 때이다. 나와 내 집단은 바르게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집단은 이데올로기와 사리사욕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는 것이 모두가 영웅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 출발점임을 깨달아야 할 때이다.

社說

뜻밖의 재난 제주항공 참사로 맞은 가장 슬픈 새해

제주항공 참사 발생 24시간, 광주한 장례식장에서 희생자 첫 발인이 치러졌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망자 179명의 모든 신원을 확인하고 유가족에게 시신을 인도하고 있다.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사고 현장에서는 기체 잔해를 중심으로 유해 일부, 유류품을 수습하는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옷과 가방 등 수거된 유품도 분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확인을 거쳐 인계 절차가 시작됐다. 소유자를 단정하기 어려운 휴대전화 등 일부 전자기기는 동의를 얻어 디지털 포렌식 과정을 거친다.

너무도 아프고 슬픈 새해다. 아직도 믿기지 않는 유족들은 하염없는 눈물만 흐른다. 을사년 첫 날 처음으로 찾는 현장에서 백곡과 굴 등으로 간소하게 제사상을 차려 냈을 위로하면서 보고 싶은 가족의 이름을 목놓아 불렀다. 무안공항 내 합동분향소는 통곡이 이어지고 있다. 영정 앞에 국화꽃을 올린 추모객들의 흐느낌도 뻔뻔하고 있다. 내 이웃의 일이고, 내 일이 될 수 있었다며 비통함을 감추지 못했다. 광주 5·18민주광장에 차려진 분향소에도 고인들을 위로하기 위한 긴

행렬이 생겨났다. 해맞이 대신 어린 아이의 손을 잡고, 또 가족 단위로 나선 길이었다. 국가적 애도 분위기에 각급 기관·단체의 2025년 시무식도 엄숙하게 진행되고 있다. 광주시민사회는 이윤만을 절대적 가치로 내세우는 시스템을 바꿔 사회적 참사가 발 불일 수 없는 나라를 건설하는데 앞장서기로 했다.

국민들의 신년 소망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평화로운 나라다. 2011년 4월 진도 앞바다 세월호 침몰, 2022년 10월 서울 이태원 압사 참변 등과 같은 재난이 더는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 단 한 건의 불의의 사고도, 단 한 사람이라도 소중한 생명을 잃어선 안 된다. 막중한 책임감으로 국가적 역할을 모아선 안 된다. 지속적인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을 위해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치적 불확실성과 경제적 위기를 하루빨리 수습해야 한다. 제주항공 여객기 대형 참사까지 국난 극복을 위한 협치가 절실한 상황이다. 다시 한번 희생자들의 영면을 기원한다. 유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연대의 마음을 전한다. 평온하고 행복한 해가 되길 바란다.

목포대·순천대 통합 신청 후속절차 이행 차질 없어야

국립 목포대학교와 국립 순천대학교가 통합 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신청서에는 각 지역의 강점과 학문적 특성을 바탕으로 특성화 전략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실현 목표를 설정했다. 두 대학은 지난해 11월 15일 대학 통합, 의과대학 설립에 합의한 뒤 공동추진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준비해왔다.

정부의 글로벌대학에 나란히 선정된 만큼 상당한 통합 효과가 예상되고 있다. 현실화될 경우 유일무이 초글로벌대학으로 탄생하는 셈이다. 전남 전체를 아우르는 국립대학으로 위상은 더욱 견고해질 것이다. 지역사회와 협력을 강화하고, 교육·연구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며 학생과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대로 잘 진행돼야 한다. 물론 전남 지역의 오랜 숙원인 의대 신설에 대한 의지도 변함이 없어야 한다.

특히 목포대는 앞서 전남도립대학교와도 통합 신청서를 교육부에 냈다. 지난 1월 합쳐서 체결 이후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지속해서 소통한 끝에 결과물을 만들었다. 지역 주력산업 기술

·가능인력 수요에 대응하는 전주기 인력양성 시스템을 갖춰 국내 최초로 2·4·4학제 국립대로 발돋움하게 된 것이다.

도민의 30년 염원인 의료복지 향상을 위한 의과대학 유치라는 대승적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학내 구성원, 동문, 지역사회 등도 별다른 이견 없이 대체로 동의, 큰 산을 넘었다. 통합대학 교명은 가장 국립 한국제일대학교다. 무엇보다 의과대학 정원 확보 및 통합의대 및 대학병원 설립은 궁극의 지향점이다.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해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며 지역과 함께 성장하고 미래를 열어가는 과정에 차질이 없어선 안 된다.

2025년 3월 개교를 목표로 두 대학의 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방 소멸 위기 속에 희망찬 변화의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단순히 하나로 합치는 게 아니다. 초일류 1도 1국립 선도모델이다. 전남을 넘어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역량을 갖춘 종합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다. 관계 부처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후속 절차 이행을 촉구하는 바이다.

문화난장



이 현
아동문학가

2025년 걱정없는 세상이 되길

"이젠 괜찮아, '걱정 인형'이 가져갔거든." 옛 마야 문명의 발상지인 중부 아메리카의 과테말라에서 전해오는 '걱정 인형'은, 부모가 걱정하는 아이에게 선물로 줬던 것에서 유래한다. 작은 나무와 형질 조각으로 만든 조그맣고 볼품도 별로 없는 걱정 인형에게 속상하고 걱정되는 일들을 이야기하게 한 다음, 베개 밑에 넣어 두고 잠자리에 들게 한다. 그리고선 아이가 새근새근 잠이 들면 베개 밑에 넣어 둔 걱정 인형을 살며시 빼내어 치우는 방법이다. 아침이 되어 잠에서 깨어난 아이는 베개 밑에 넣어 두었던 걱정 인형이 사라진 걸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쉰다. 슬프고 속상하고 걱정되는 일들을 모두 걱정 인형이 가져가 걱정도 대신 해주고, 아주 멀리 가져가 내다 버린다는 부모의 말에 기분도 좋아진다.

영국의 세계적인 삽화가이며 동화작가인 앤서니 브라운의 그림책 〈검둥이 빌리〉에도

걱정 인형이 등장한다. 침대에 누워 잠을 자는 동안에 모자가 너무나 많아져 침대를 덮쳐 버릴지도 모른다는 걱정, 침대 밑에 놓아둔 신발들이 잠을 자는 동안에 창문을 넘어 도망가 버릴지도 모른다는 걱정, 잠을 잘 수 없는 빌리의 이야기다. 잠을 자는 동안에 큰비가 내려 침대가 물에 잠겨버릴지도 모른다는 걱정, 커다란 새가 날아 들어와 빌리를 입에 물고 어디론가 훨훨 날아가 버릴지도 모른다는 걱정에 마음 편히 잠을 잘 수 없는 검둥이 빌리의 이야기다.

"걱정하지 마라, 아가야, 무슨 일이 있더라도 엄마가 널 지켜 줄 거야. 그런 일은 일어난 수 없다. 다 네 상상일 뿐이야." 아빠와 엄마가 건네는 위로의 말도 걱정을 더 해줄 뿐이다. 쓸데없는 걱정이나 하는 아이가 된 것 같고, 누군가가 지켜줘야 할 나약한 아기가 된 것 같아 더 많은 걱정이 쌓일 뿐이다.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걱정이나 하는 바보가 된 것 같아 또 다른 걱정이 더해질 뿐이다.

"걱정하지 마라, 걱정 인형이 대신해 줄 거란다."

할머니도 빌리처럼 별별 상상을 다 하며, 걱정도 많았는데 지금은 괜찮다는 말과 함께 건네주시는 걱정 인형도 빌리의 걱정을 없애지는 못한다. 걱정 인형에게 걱정을 털어 놓고, 베개 밑에 넣어 둔 다음 잠자리에 들었

지만 잠을 잘 수가 없다. 빌리가 자는 동안에 빌리의 걱정들을 대신하여 걱정하고 있을, 빌리의 걱정들을 아주 멀리 내다 버리기 위해 애쓰고 있을 걱정 인형들이 걱정되었기 때문이다.

'걱정 없는 시간이 있었을까...'

가만 생각해 보면, 살아오면서 걱정 없는 시간이 얼마나 있었나 싶다. 날씨가 너무 추울까 봐 걱정하고, 날씨가 너무 더울까 봐 걱정했다. 사람을 초대해 놓고는, 너무 적게 준비한 것 같아 또 걱정했다. 이런저런 걱정도 없이 너무나 편안하게 지내는 것 같으면, 내 삶의 방식이 안이해진 것 같아 또 다른 걱정이 생겨났다. 하지만, 걱정은 단지 걱정일 뿐인 것 같다. 걱정은 또 다른 걱정을 낳게 될 뿐, 부축함을 채우기 위해 거쳐야 할 단계도 아니고 앞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준비도 아닌 것 같다.

2025년, 새해가 시작됐다.

이제는 걱정이 아닌, 준비하며 함께 나아가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다. 빌리의 걱정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주었던 것은 아빠와 엄마의 위안도, 할머니가 건네주시는 걱정 인형도 아니었던 것처럼, 걱정의 시작도 걱정의 끝도 우리들의 몫이니 말이다. 걱정 없는 세상을 위해!

다카시 광장

묵언수행

오종희

동안거에 든 고승처럼 닫혀 있는 마음의 문

침묵의 길이 깊다

갈등의 소용돌이 내리치면 광명 세상 열릴까

*시작노트
우리 사회는 양극화 되어 갈등의 골이 깊다. 구성원들이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서 바둑판 위에 흑과 백의 돌들처럼 이념적 충돌이 치열하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길은 없을까?
동안거에 든 고승처럼 마음의 벽을 허물고 무거운 짐을 하나둘 내려놓으면 좋으려만...

(광주다카시인협회 제공)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시민의 관심·참여 절실

독자투고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교묘해지며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는 개인의 재산을 빼앗는 것뿐만 아니라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초래하며 우리 사회에 큰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다. 따라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시민들의 경각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보이스피싱은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데 최근에는 '개인정보 유출'이나 '계좌 이상 거래'를 언급하며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이 전화나 문자로 개인정보와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항상

유념해야 한다.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는 클릭하지 않고, 모르는 번호로 온 전화는 신중히 응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여수경찰서는 관내 금융기관과 협업해 대규모 현금 인출 시 112 신고를 의무화하는 사전 차단 체계를 구축하고,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과 홍보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보이스피싱은 경제적 피해를 넘어 서민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최악의 범죄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시민 개개인의 경각심과 예방 참여가 필수적이다. 작은 관심과 실천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고, 우리 사회를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임재환·여수경찰서 형사과 사무관)

침착하고 정확한 112신고 중요

위급한 상황에서 침착하고 정확한 112 신고는 피해자 보호와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지난해 전남형 112 신고는 총 72만 건으로, 이 중 살인, 강도, 성폭력 등 중요 범죄는 28%를 차지했다.

전남 화순경찰서는 1만2천여 건의 신고를 접수했으며, 중요 범죄는 29%로 집계됐다. 화순경찰청은 화재현장 신고자와 성폭력 예방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표창장과 감사장을 수여하며 112 신고를 통한 국민 참여를 높이고 있다. 경찰은 112 신고를 국민과 경찰이 함께 만들어가는 치안 파트너십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112 신고는 자신, 가족, 그리고 타인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위급한 상황이 나뉘면 침착하게 목격하면 침착하고 정확한 112 신고로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당부한다.

(정성연·화순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사진부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논설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1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 V 본부 650-2009	사업본부 650-2007	입부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규칙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2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제)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0원